

노동계 빠진 생색내기용 산재 감축 간담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기관 20여명만 참석

산재 사망사고 줄 잇는데

지난해보다 감소 자화자찬

노동계 "현장 목소리 외면" 비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줄이기'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생색내기용 간담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책의 핵심당사자인 노동계를 제외하고, 기업 위주로만 참석자를 채운 것은 고용노동부가 산재감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하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에 방보상정책국 박종일 산업안전과장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임승선 청장을 비롯해 광주안전보건공단 관계자, 광주·전남 건설업체 10곳의 대표,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5곳의 대표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노동계의 입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낼 참석자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기업 위주의 참석자만으로 채워 형식적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광주·전남에서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산재 사고가 줄고 있는 데도 고용노동부가 제 입맛에 맞는 간담회만 개최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순천시 별량면 철도길에서 제조작업 안전담당인 A씨가 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철도길 주변 제조작업을 하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당시 15

명의 제조작업 인원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수신히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정소를 하던 일용직 60대 여성이 후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6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량(62건)보다 8건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업종에서는 감소했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비율이 건설업종에서 57%(29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수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일뿐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단순 산재를 포함해 산재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청이 산재를 발생시키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개선보다는 단지 산재 사망사고 수치 감소

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노동계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의 입장차 줄여 개선책을 만드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당장 광주 하남공단의 H회사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6건의 산재사고(용접 불꽃으로 인한 각막 찰과상·각종 화상 등)가 발생했지만,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산재사고는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는 "이처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각종 보상을 쥐가며 공상처리를 하고 있다"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다수 중소기업이 비슷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중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산재보험료(개발설적외음) 상승, 입찰자격심사(PQ)의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록금 10% 지급



정병석(가운데) 전남대 총장이 20일 학생 대표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광주대, '코로나19 극복' 등록금 11.3% 감면

광주대학교가 1학기 등록금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다.

광주대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난극복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대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납부 총액의 11.3%를 코로나19 재난극복특별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지금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는 방식이다. 지급대상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한 학생 중 2학기 등록 예정인 학생이다. 줄

입자에게는 생활비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대 김혁중 총장과 대학 주요 보직교수, 팀장급 이상 직원, 직원 친목회 등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기금 1억 7500여만 원도 장학금에 포함됐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은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소비감소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자 재난극복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구성원이 학생 교육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5·18 단체장 만난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5·18문제 해결 민주당보다 더 노력하겠다"

평화 사과, 헌법전문 명시 등 요구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 갖고 지켜봐달라."

20일 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를 방문해 5·18 단체장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18관계자로는 오월 3단체장과 5·18기념재단 이사장, 공법단체 추진위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또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송연석 비대위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이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임동하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월 3단체장은 과거 미래통합당의 5·18 왜곡·평화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당부했다.

또 헌법전문에 5·18정신의 명시, 역상 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5·18 3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추가로 5·18관계자들과 미래통합당의 소통창구를 만들어 법안 문제를 협의하자 는 요구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헌법 전문 수록은 헌법특위가 만들어지면 논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합당이 5·18 3법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과거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단체와 통합당 최고위원이나 정무위 간사 등과 소통창구를 만들어 법안문제를 협의하자"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주말 폭염·열대야 지속 최고기온은 다소 하락

광주·전남지역에 열대야는 지속되지만 주말과 일요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양 37.7도, 순천 35.7도, 여수 35.4도, 구례 35.3도, 광주 34도였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 특보는 지난 11일부터 열흘째 유지되고 있고 있다. 여수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열대야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 아침 최저기온 22~26도·낮 최고기온 31~35도로 폭염이 지속되겠지만, 주말과 일요일인 22·23일에는 낮 최고기온 31도 내외로 더위가 약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열대야는 상당수 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낮 동안 야외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긴장마·폭염에 채소 가격 폭등 20일 오전 광주 서부농산물 시장 채소도에 배추와 고추 등 다양한 채소들이 쌓여 있다. 농협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긴장마와 폭우로 배추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는 등 상추, 부추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복구,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복구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일 복구에 따르면 복구는 오는 26일까지 '2020 하반기 생동감학교'에 참여할 주민모임 17곳과 '생활의 지혜 교실'을 이끌어갈 주민강사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

영되며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생동감학교는 복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좌와 강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강사가 주민모임을 찾아가 강의를 실시한다. 생활의 지혜 교실은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역량 있는 주민강사를 모집해 바리스타, 미용 등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 10인 이상 소모임 또는 자신만의 재능을 가진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복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